

<전기·전자>

엔화강세 등에 업고 수출시장 호황

94년들어 국내 전자산업이 전자부품의 대폭적인 수출증가에 힘입어 쾌속항진을 계속하고 있다.

국내 전자시장의 7월까지 수출은 166억7000만달러로 93년동기대비 22.6%라는 큰폭의 증가를 나타냈다.

수출시장에서 두자리수 이상의 증가율을 보인 것은 91년이후 3년만으로 최근의 엔화강세로 미국과 유럽시장에서 일본제품에 대해 가격경쟁력이 높아진데 주요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더욱이 엔화강세가 94년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상반기의 수출 호조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 전자산업의 94년 수출실적은 27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7월까지 부문별 수출은 전자부품이 92억달러로 93년동기대비 48%라는 대폭적인 증가세를 나타냈다. 가정용 전자시장은 남미시장 등 새로운 수출시장 개발로 39억달러 93년동기대비 10.6% 증가라는 호 실적을 보였다.

그러나 산업용기기 시장은 3.2%의 저조한 증가세를 기록하여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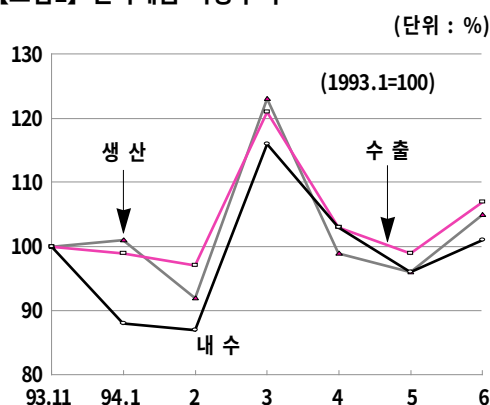
한편, 10대 주요품목의 수출은 7월중 11억700만달러어치의 수출실적을 보인 반도체가 93년동기대비 65.3% 증가한데 힘입어 7월까지의 누계실적에서도 65억67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8.6%의 높은 수출증가율을 나타냈다.

전화기 역시 7월들어서만 4700만달러어치를 수출, 93년동기대비 62.1%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7월누계 수출실적에서도 27.8%의 높은 수출증가율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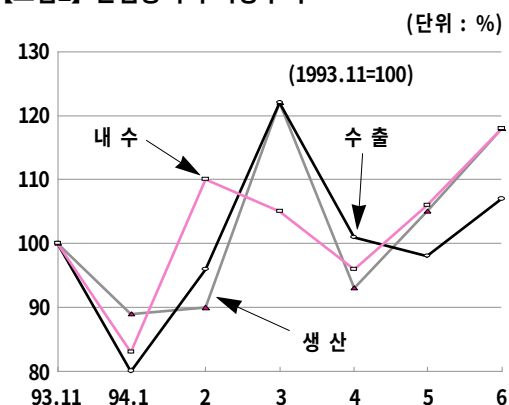
반면 컴퓨터는 불황과 동남아 저임금 국가들의 양산체제 돌입으로 기존 수출시장을 상실하고 있는데, 7월중 11.3%라는 높은 수출증가율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7월누계 실적에서는 상반기의 부진으로 93년동기대비 6.2% 감소하는 부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세계 컴퓨터시장의 전반적인 호조와 특히 주수출국인 미국이 빠른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경쟁국인 일본이 엔화강세로 수출가격 경쟁력에서 불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연말까지는 93년 수준의 수출실적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림1】 전자제품 시장추이



【그림2】 산업용기기 시장추이



6월 전자산업, 수출에 주력

국내 전자산업 시장현황을 보면, 6월 생산은 총 3조1864억원으로 전월대비 8.8%증가했다. 수출은 2조5802억원으로 전월대비 13.5%, 내수는 7227억원으로 3.6% 각각 증가, 6월 전자산업은 내수보다는 수출시장에서 보다 활발한 판매활동을 보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부문별 실적을 보면, 산업용기기는 6월들어 생산이 6590억원으로 전월의 5794억원에 비해 12.0% 증

가했으며, 수출은 4728억원으로 9.0% 증가했다.

내수판매에서는 2378억원으로 11.0% 증가했으며, 이것은 94년 상반기 후반들어 전반적인 경기회복세에 따라 신규투자 설비가 늘어난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산업용기기 분야에서는 정보기기분야의 6월 생산이 3406억원으로 전월대비 10.8%, 수출은 2970억원으로 11.8%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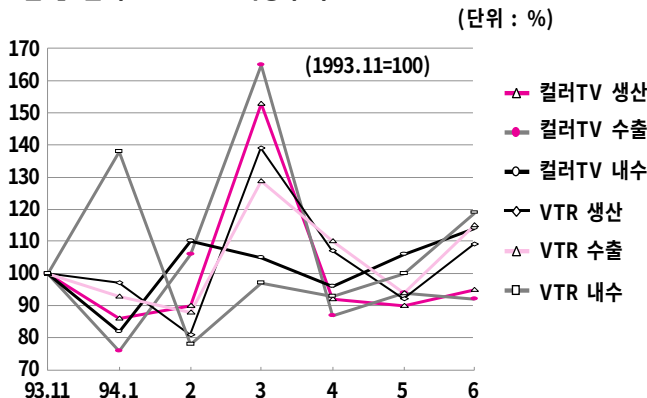
가정용기기는 8718억원의 생산실적으로 전월대비 0.4%의 소폭 증가를 나타냈다. 가정용기기 수출은 동남아 신흥개도국의 자국내 생산강화로 인해 동남아시아시장에의 수출전략에 차질을 빚고 있으나 중남미와 동유럽권 국가 등 새로운 수출시장 개발에 성공, 이들 지역에 대한 신규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따라 국내 가정용기기의 6월 수출은 전월대비 5.9% 증가했으며 내수는 생활수준 향상으로 대형 소비제품이 판매호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3386억원을 기록해 전월대비 2.3%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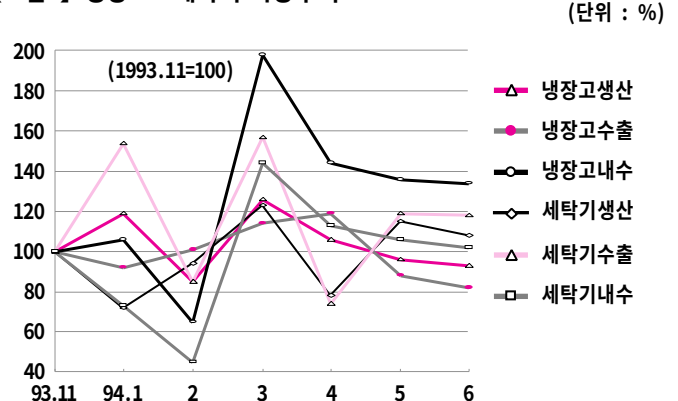
7월들어 국내 가정용기기시장은 80년이래 최고기온을 기록한 무더위로 냉장고와 선풍기 등 여름상품들이 재고가 바닥나는 호황기를 맞이함에 따라, 가전 3개사의 경우 생산실적이 100%이상 증가하는 등 하반기 실적이 크게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6월까지의 실적을 보면 냉장고는 1090억원의 생산실적으로 전월의 1121억원에 비해 2.8% 감소했으나, 7월 생산이 6월 생산감소분을 상쇄시킬 수 있을 만큼의 호실적을 보임에 따라 94년 전반적인 생산실적은 예년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림3】 컬러TV · VTR 시장추이



【그림4】 냉장고 · 세탁기 시장추이



전자부품 엔화강세로 수출호조

전자부품분야는 6월들어 총 1조6555억원의 생산실적으로 5월 1조4567억원보다 13.6%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이같은 전자부품의 생산증가는 1조4869억원으로 전월대비 8.0% 증가한 수출 호조에 따른 것으로 전자부품 수출은 최근 엔화강세에 의해 일본산 제품을 수입하던 국가들이 한국쪽으로 수요처를 바꾸고 있어 94년 하반기까지는 전반적으로 전자부품시장이 호황세를 누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부문별로는 최근 경제개발계획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필리핀, 타이 등지에서의 컬러TV 생산량 증가로 국내 컬러TV 부품시장이 호황세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반적인 완제품시장의 수출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컬러TV 부품시장은 6월들어 총 642억원어치의 생산실적으로 전월대비 100%의 생산증가율을 나타냈으며, 수출도 5월 304억원에서 6월에는 699억원으로 129%의 대폭적인 증가율을 나타냈다.

그러나 내수는 73억원의 판매실적에 그쳐 50이미 성숙기에 접어든 시장상황을 대변해 주고 있다.

향후 컬러TV 부품시장은 후발개도국에서의 생산량 증가에 연동,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에따른 완제품시장에서의 수출경쟁력 하락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음향기기 부품시장은 365억원의 생산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수출도 6월 287억원으로 전월대비 12.0% 증가했다.

국내 전자시장은 엔화강세에 따른 수출경쟁력 회복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내수경기 활성화와 가전3사의 제품 가격인하 등으로 하반기까지 호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화학저널 1994/11/1>